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던 유로2020이 12일(한국시간) 개막한다. 디펜딩 챔피언 포르투갈을 이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최다 골·연속출전·연속득점 등의 대기록을 노린다. AP뉴시스

‘유로2020’ 12일 개막 ‘별들의 향연’ 시작된다

이탈리아-터키 개막전...31일간의 대장정 돌입 ‘통산 9골’ 호날두 1골만 추가해도 대회 최다골

지구촌 최고의 축구 축제가 돌아왔다. 2020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12일 오전 4시(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피코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터키의 A조 1차전(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3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당초 지난해 6~7월 유럽 12개국, 12개 도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했다. 결국 개최도시 1곳(아일랜드 더블린)이 이탈해 11개국, 11개 도시에 펼쳐진다. 대회 명칭은 4년 주기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유로2020으로 유지됐고, 결승전은 다음달 12일 런던 웨블리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 여파...엔트리 확대

24개국이 참가해 4개국씩 6개조로 나뉘 조별리그를 진행한 뒤 조 1·2위 12개국과 조 3위 중 상위 4개국이 16강에 오른다. A조는 이탈리아, 터키, 웨일스, 스위스다. B조에선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핀란드가 경쟁한다. C조는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북마케도니아, D조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체코, 스코틀랜드다. E조에선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슬로바키아, F조에선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독일이 격돌한다.

사상 첫 범유럽대회인 유로2020은 로마와 런던 외에 독일 뮌헨, 스페인 세비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헝가리 부다페스트, 덴마크 코펜하겐,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도 관전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국이라 대회 방식에 변화가 있다. 최종엔트리 26명으로 확대됐고, 교체인원도 5명으로 늘었다. 경기장 관중 규모도 도시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5~30% 선에서 입장이 허용된다.

●별들의 향연&우승 후보는?

‘죽음의 조’는 디펜딩 챔피언 포르투갈, 2014브라질 월드컵 우승국 독일, 2018러시아월드컵 우승국 프랑스가 속한 F조다. 포르투갈 에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기록에도 시선이 쏠린다. 유로대회 통산 9골을 넣어 ‘프랑스의 레전드’ 미셸 플라티니와 동률인 그는 1골만 추가해도 최다골을 찍는다. 호날두는 또 4회 연속 출전, 4개 대회 연속 득점이란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 1경기, 1골만 보태면 모든 부문의 대기록을 쓴다.

우승 전망은 분분한 가운데 잉글랜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구종가’란 타이틀에 비해 메이저대회 정상은 1966년 월드컵이 전부인 잉글랜드는 유로대회에선 2차례 4강에 올랐으나 해리 케인(토트넘)과 라힘 스털링(맨시티)이 선봉에 설 올해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 외에 지난 대회 득점왕 앙투안 그리즈만(FC바르셀로나)과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를 앞세운 프랑스, 역대 최다 우승(3회) 타이로 카이 하베츠(첼시)를 보유한 독일(1972·1980·1996년), 알바로 모라타(유벤투스)-페란 토레스(맨체스터시티)가 전방을 책임질 스페인(1964·2008·2012년), 로베루 루카쿠(인터밀란)-케빈 데브라위너(맨체스터시티)가 이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벨기에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아우들은 눈도장 찍고, 형님들은 악연 끊고...

김학범호 최종엔트리 실전 테스트 조규성·오세훈 최전방 경쟁 불가피 벤투호 레바논 잡고 화려한 피날레 충격패·무승부...과거 악몽 설욕 각오

축구로 후끈 달아오를 주말이다. 한국 축구의 형님, 아우들이 내일의 희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먼저 7월 도쿄올림픽에서 금빛 시상대를 꿈꾸는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대표팀이 모처럼 ‘실전 모드’로 전환된다. 이달 말 최종엔트리(18명) 선정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제주 서귀포에서 강화훈련을 진행해온 올림픽대표팀은 12일과 15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2차례 친선경기를 펼친다.

소집 1주차에는 전술 이해도와 컨디션, 포지션별 경쟁력을 점검한 김 감독은 2차례 실전을 통해 큰 틀의 엔트리 선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서귀포 캠프에



김학범 감독 벤투 감독

소집된 선수 모두가 최소 45분 이상의 출전시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이 뚜렷한 터라 모든 포지션이 고민스러운 가운데, 최전방에서도 경쟁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올림픽 예선을 겸한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우승에 크게 기여한 조규성과 오세훈(이상 김천 상무)은 모두 도쿄행을 꿈꾸지만 상황에 따라선 최소 1명

은 탈락할 수도 있다.

김 감독은 공간침투에 능한 조규성과 상대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가 강점인 오세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스트라이커에 와일드카드(25세 이상)를 선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둘은 “올림픽에 간다면 내가 아닌 팀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걸 쏟아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최근 일본 원정경기(0-6 패)를 마친 선수 18명이 포함된 가나 선수단은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큰 이상이 없으면 11일 제주로 이동한다. 가나는 아프리카 예선에서 4위에 그치며 3위까지 주어진 올림픽 본선 티켓 확보에 실패했으나, 우리가 실전감각을 채우고 주요 전술을 확인하기에는 최적의 상대다.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된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의 국가대표팀은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레바논과 아시아 2차 예선 H조 최종전

(6차전)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4승1무, 승점 13으로 조 선두에 올라있고, 레바논은 3승1무1패, 승점 10으로 2위다. 내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아시아 2차 예선 H조 1위를 확보함에 따라 한국이 레바논에 설사 9골차 이상으로 대패하더라도 최종예선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물론 ‘벤투호’는 오로지 승리를 생각한다. 레바논은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 꾸준히 우리를 괴롭혔던 상대다. 2011년 11월 베이루트에서 열린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선 1-2 충격의 패배를 안겼고, 한국이 2전승을 거둔 2018러시아월드컵 2차 예선 때도 만만치는 않았다. 벤투 감독이 지휘한 2019년 11월 원정에서도 득점 없이 비겼다.

태극전사들은 시원한 승리와 함께 짙은 악연을 끊겠다는 의지로 총만하다. 벤투 감독도 “최종예선에 사실상 진출했어도 최상의 라인업을 구축해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10대 돌풍’의 주역 정상빈이 A매치 데뷔전·데뷔골의 기록도 썼다. 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한국-스리랑카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5차전이 그 무대였다. 교체 투입된 지 5분만에 후반 32분 5-0 대승을 완성하는 썩기골을 터트린 뒤 선배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정상빈(오른쪽 3번째). 곽영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스리랑카전 투입 5분만에 골...손흥민 떠올리는 ‘열아홉살 정상빈’

A매치 데뷔전 데뷔골...대승 완성 손흥민·돌파력 ‘10년전의 손흥민’ “다음 목표는 카타르월드컵” 각오

카메라 앵글은 교체해 준비하던 정상빈(19·수원 삼성)을 잡았다. 후반 27분 투입되자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이 쏠렸다. 소문대로 ‘돌풍’이 맞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5분 만에 ‘번쩍’했다. A매치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또 한 명의 스타는 그렇게 탄생했다.

정상빈은 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스리랑카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5차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잠재력을 폭발하며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다. 후반 32분 이동경(24·울산 현대)이 시도한 왼발 슈팅을 끝난 앞에 있던 정상빈이 오른쪽으로 살짝 방향만 틀어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이미 4-0으로 앞선 상황에서 나온 추가골이었지만, 정상빈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바로 A매치 데뷔전·데뷔골이었다.

선발되기도 힘든 국가대표팀에 뽑힌 데 이어 데뷔전까지 치른 것만으로도 19세 유망주에게는 큰 행운이다. 게다가 19세 75일로 역대 A매치 최연소 득점 순위 8위 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정상빈은 올 시즌 K리그에 데뷔한 신인이다. 그런데 경기력은 예상치 못했다. 힘, 스피드, 골 결정력, 근성 등 모든 것을 갖췄다. 3월 포항 스틸러스전을 통해 데뷔전·데뷔골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은 뒤 거침이 없었다. 강한 상대 앞에서도 결코 주눅 들지 않는 모습에 팬들은 환호했다. 올 시즌 히트상품인 ‘매단소년단’의 주축 멤버로 4골·1도움을 올리며 수원의 상승세를 이끌자,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가능성을 보고 깜짝 발탁했다.

이번 대표팀에서 막대한 정상빈에게 소집 이후 줄곧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10년 전 손흥민(29·토트넘)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많다. 손흥민, 스피드, 그리고 과감한 돌파 등 10년 전 손흥민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에 막내로 뽑힌 손흥민은 인도전에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됐고, 3-1로 앞선 후반 36분 왼발 슈팅으로 A매치 3번째 출전 만에 데뷔골을 기록했다. 또 18세 194일로 역대 최연소 득점 2위에 자리했다.

정상빈은 경기 후 “솔직히 부담감이 있었지만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 데뷔골까지 넣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다음 목표는 월드컵 출전이다. 카타르월드컵에 꼭 참가해서 뛰고 싶다”며 다부진 의지를 드러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병역 해결보단 ‘성장·도전’...올림픽 다양한 동기부여 흐뭇

남정현 기자의 피버피치

얼마 전까지 한국축구에서 올림픽 출전의 목적은 ‘병역 혜택’에 가까웠다. 시상대에 올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상당수 지도자들과 선수들은 ‘병역’에 좀더 무게를 싣고 올림픽을 바라봤다. 구단들도 비슷했다. 자산인 소속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가치와 몸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흔쾌히 차출에 응했다. 우리가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기억은 홍명보 감독(울산 현대)이 이끈 2012년 런던대회가 유일한데도 그랬다.

요즘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많은 축구인들은 올림픽을 단순히 병역 혜택을 위한 무대로만 보지 않는다. 월드컵과 아시안컵까지는 아니지만, 큰 메이저대회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그 배경에는 선수 개인의 ‘성장’과 이를 발판으로 한 ‘해외 진출’이라는 목표가 깔려있다. 올림픽에서 눈부신 퍼포먼스를 펼쳐 큰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다.

비현실적 계획이 아니다. 올림픽은 출전 조건이 까다롭다. 7월 개막할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돼 24세 이하(U-24)가 출전제한 연령이지만, 평상시라면 U-23에 한 자격이 주어진다. 와일드카드 3명을 제

외한 각국 최종엔트리의 15명이 이 기준에 들어야 한다.

지구촌 축구를 양분하는 유럽과 남미에는 20대 초반의 선수들을 위한 국제대회가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U-21 챔피언십이 대표적이다. 차세대 자원이 준비하되나 비리그, 빅클럽 스카우트 담당자들은 항상 이 대회를 주목한다.

반면 아시아의 젊은 피들에게는 이 같은 기회가 많지 않다. AFC U-23 챔피언십이 있지만, 출전국들의 전력 편차가 크다보니 매력적이지 않다. 그 대신 이 대회를 우수한 성격으로 마친 뒤 나서게 될 올림픽에서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맞을 수 있다.

이달 말 제주월드컵 최종엔트리 선정에 앞서 제주 서귀포에서 강화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대표팀도 병역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실제로 ‘김학범호’에 합류한 선수들 중에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특례를 얻은 이들이 적지 않다. 와일드카드 후보군도 일부는 제외하면 대부분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모두가 “올림픽에 꼭 가고 싶다”고 외친다.

물론 병역 혜택은 대단한 동기부여다. 하지만 지나칠 경우, 결정적 길목에서 발목을 잡는 치명적 족쇄가 될 수 있다. 심적 부담은 몸을 무겁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한층 다양해진 올림픽 출전 목적이 더없이 반갑기만 하다. yoshike3@donga.com